

삼성전자, LED조명 자체 테스트

CE인증 시험소 적합여부 평가 완료 ... 인증기간 단축에 비용절감 효과

삼성전자(대표 권오현)가 LED 조명제품의 <CE 인증>을 위한 테스트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CE인증>은 건강, 안전, 환경 관련제품을 유럽에서 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것으로, 삼성전자는 수원 디지털시티에 있는 자체 LED(Light Emitting Diode) 조명 시험소가 CE인증 시험소로서 적합여부 평가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CE인증 획득을 위한 각종 테스트를 자체 시험소에서 할 수 있게 돼 인증기간을 8주에서 4주로 줄이고 비용도 40% 가량 절감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UL코리아>에서 테스트를 한 뒤 CE 인증까지 발부했으나 앞으로 삼성전자의 LED제품은 자체 테스트를 한 뒤 UL코리아에 인증 신청만 하면 된다.

삼성전자 LED사업부 송영희 상무는 “4월 미국 <UL인증>에 대한 자체 시험소 자격을 획득한데 이어 유럽 CE인증 시험소까지 구축했다”며 “고품질 LED조명 솔루션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고 인증기간 단축으로 고객들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2011년 LED조명 시장규모는 18억달러로 전체 LED 시장의 15%에 그쳤지만 2015년에는 전체 LED 시장의 26%인 3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9/27>